

작년 대학생 1인당 장학금 337만원

교육부, 4년제 185개대 정보 분석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35만3257명 평균 입학전형료 4만8800원... 6.9% ↓

지난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1인당 장학금은 33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5000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는 35만3257명으로 전년 대비 1만270명 줄었다. 평균 입학전형료는 4만8800원으로 6.9%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31일 4년제 일반 대학 185개교의 학생 1인당 장학금·학자금 대출·적립금·입학전형료 등에 대해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장학금 총액은 4조 7377억원으로 전년(4조 7062억원) 대비 315억원(0.7%) 증가했다. 전체 장학금 중 국가 장학금이 2조 7755억원(5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내 장학금 1조 8051억원(38.1%), 기타 교외 장학금 1378억원(2.9%), 지방자치단체 193억원(0.4%)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37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5000원(2.9%) 증가했다.국·공립대학과 275만원, 사립대학은 356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

3000원(1.6%), 10만9000원(3.2%)늘어났다. 수도권 대학은 336만원, 비수도권 대학은 33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만9000원(2.4%), 10만15000원(3.2%)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2017년 2학기~2018년 1학기)이용 학생 수는 35만3257명으로 전년 대비 1만270명(2.8%) 줄어 들었다. 전체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의 비율도 12.6%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과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공립대학의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9.5%로 사립대학(13.5%) 대비 4.0%포인트 낮았고, 수도권 대학은 12.8%로 비수도권 대학(12.4%) 대비 0.4%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입

학전형료는 4만88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00원(6.9%) 감소한 것이다. 국·공립대학이 3만3000원, 사립대학은 5만2100원으로 각각 3100원(8.6%), 3800원(6.8%)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은 5만8300원, 비수도권 대학은 3만6400원으로 각각 3500원(5.7%), 3400원(8.5%) 줄어 들었다.

대학들의 연구비 총액은 5조 4104억원으로 전년(5조 2374억원) 대비 1730억원(3.3%) 증가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도 7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났다. 전국 사립대의 적립금(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쌓아두는 돈)은 7조 9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원(0.2%) 감소했다.

대학별 자세한 공식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원광대학교가 지난달 30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6·13지방선거' 당선 동문을 초청해 동문 의원 간 교류회를 개최했다.

“모교의 자랑과 희망이 될 것”

원광대, 지방선거 당선 동문 교류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지난달 30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6·13지방선거' 당선 동문을 초청해 동문 의원 간 교류회를 개최했다.

익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과 함께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도중 총장 및 대학본부 운영위원과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당선 동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배종항 기획처장으로부터 대학 발전사항 등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도중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뜻깊은 날, 올해 선거에서 주인공이 되신 자랑스러운 동문 의원님과 함께 축하와 교류의 장을 마련해 기쁘다”며, “우리 원광대는 최근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과거의 원광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 가는데 전체 구성원이 합심 협력하고 있다”며, 동문 의원님들의 관심이 당부했다.

또한, “모교의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희망이 되는 동문 의원님들

의 거침없는 발전을 믿는다”며, “지역에서 전국, 더 나아가 세계화를 위해 발돋움하는 모교 발전에 끝까지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주시는 여러분이 뛰어난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류회에서는 동문 의원 간 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원광대학교 동문 정치인 모임인 '원정회'가 조직됐으며, 초대 회장에 남원시의회 윤지홍(사진 전자 공학과 졸업) 의장이 추대되고, 총무는 전북도의회 김정수(철학과 졸업)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지홍 회장은 “오늘 뜻깊은 자리에 동문 의원들과 함께 기쁘고 반갑다”며, “뜻하지 않게 회장까지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원정회를 중심으로 우리 동문 의원들과 모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호원대, 이달 10일부터 수시모집 시작... 964명 선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19학년도 대입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인원은 전체선발 1,188명의 81%인 964명이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정원내 학생부교과(일반전형) 774명, 학생부교과(산업대우선선발전형) 2명, 학생부교과(검정고시출신자전형) 8명,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6명, 학생부교과(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12명, 실기위주(일반전형) 99명 등 총 901명을

선발하고, 정원외 학생부교과(농어촌 학생전형) 14명, 실기위주(농어촌학생전형) 15명,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전형) 14명, 실기위주(기회균형선발전형) 15명, 학생부교과(특성화졸업자전형) 5명 등 6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비면접고사실시 학부(과)는 교과성적 100%이며, 면접고사실시 학부(과)는 교과성적 70%와 면접성적 30%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실기전형은 교과성적 40%와 실기성적 6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호원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단계별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에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수시합격자가 예비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 의사로 간주하며 미등록된 인원수 만큼 후보순위로 총원합격자를 발표한다.

또한, 호원대학교는 산업대학으로 수시원서 지원횟수(6회)에 제한을 받

지 않으며, 계열 간 교차지원(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음) 가능하며, 특히 모든 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모집의 유의사항으로 면접(실기)고사에 해당하는 학부(과)는 반드시 고사에 입학하여야 하며, 수시 합격자(후보총원합격자 포함)의 경우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원서는 온라인접수, 방문접수, 우편발송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원대학교 홈페이지 입학문의 또는 호원대학교 입학관리실(063-450-7031~6)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산대 양해권·김재선·이종길 교수 정년퇴임

군산대학교 양해권·김재선·이종길 교수가 지난달 31일 정년퇴임과 함께 정부에서 수여하는 근정훈장을 받았다. 수여식은 오는 9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양해권 교수는 군산대학교에 31년 동안 재직했고

육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양 교수는 재직 기간 동안 교육과정 편성과 실험장비 구축 등을 통해 학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고, 우수한 산업층의 인재들을 다수 배출했다.

융합기술창업학과의 김재선 교수는 육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김 교수



김재선 교수



양해권 교수



이종길 교수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이종길 교수는 28여 년 동안 군산대학교에 재직했다. 재직 기간 동안 학생 교육 및 연구의 직무에 충실하며 관련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육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교육청, 예비심사 통과 80개 사업 온라인 투표 진행

전북교육청이 2019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 총 121개가 응모됐으며, 이중 예비심사를

통해 80개 사업을 선정했다. 학생분야가 12개, 학부모분야 24개, 교직원 및 주민분야 44개다.

도교육청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이들 사업에 대해 오는 9월 3일(월)부터 12

일(수)까지 10일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3표씩, 1인 9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단,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휴대폰 문자인증을 실시한다.

투표는 온라인 투표시스템(<http://yesan.jbe.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단위학교 홈페이지 팝업 알림창을 클릭해서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새 대입제도 마련 추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제7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학입학 제도를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감협회는 이날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입제도를 의제로 채택해 각 교육청이 추천한 현장 교사 중심의 '대입제도개선 연구단'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이끌게 될 연

구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새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문제인 정부 출범이 1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개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국정 운영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